

로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

1. 신약성경에서 여섯 번째 나오며 서간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다.
2. 저술시기 : 바오로 사도가 57-58 년경에 쓴 서간이며 코린토에서 쓰여졌으리라 봄.
3. 특징 : 로마에는 이미 신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이쌍쓰으며 그 중의 노예로 끌려온 유다인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여김.
4. 구조 :
 - 1 장 1-17 절 : 서론
 - 1 장 18-8 장 39 절 : 신앙을 통한 의화.
 - 9 장 1 절-11 장 36 절 : 선민과 만민
 - 12 장 1 절-15 장 13 절 : 그리스도안의 새생활
 - 15 장 14 절-16 장 27 절 : 결론
5. 로마서의 배경
 -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후(교회 창립 후)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.(사도 2,10) 아마도 이때 로마에서 온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 신앙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. 당시 로마는 시리아와 마케도니아 등 근동 아시아 지역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. 혹은 로마에 끌려 온 유대인 노예들이(그리스도인) 있었다고 한다.
6. 본문 내용은 => 교재 참조
 - **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(로마 1,17)**
이 부분은 로마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다.=> 이 의로움은 하느님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. 인간의 의로움과 연관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.
 - 복음은 인간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는 길이다.(로마 3,23-24) =>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사람은 의롭게 된다.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.
 - 하느님의 의는 자비와 용서다. => 안셀모 학자의 대리속죄 사상 설명.
 - 하느님께 대한 믿음. => 바오로 사도는 율법이 우리를 의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화한다고 말한다. => 바오로 사도의 신학이다.
 - 사도 바오로의 [의화론]
 - ✓ 하느님의 의로우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망라한 모든 이를 위한 것.
 - ✓ 하느님의 정의는 인간 구원에 대한 당신 약속에 충실하셨다(로마 3,24) =>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 거저 주심.
 - ✓ 마르 10,45(그리스도는 몸값을 지불) =>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심 =>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제물(로마 3,25)

- ✓ 속죄의 제물은 대속죄의 날에 대사제가 피를 뿌리던 계약의 궤의 덮개를 의미한다(탈출 25,17; 레위 16,15) => 그리스도는 여기서 죄를 씻는 도구로에 비교되고 있는 것이다.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속죄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진다.
- ✓ 의화의 두가지 해석. (1) 법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입장이 그 하나이다. (2) 루터는 믿는 이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했고 개신교는 의화를 칭의(부름칭/옳을 의稱義)라고 번역한다. 그러나 의화는 단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믿는 이는 의롭게 변화시킨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. 칭의론이란 법정적인 개념에서 하느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다. 개신교는 루터의 이 통찰을 이야기 한다. 그러나 가톨릭 입장은 이렇다. 하느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. 우리가 죄의 상태이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변화의 선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. 즉 인간은 분명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성화(1코린 1,30)되고 새로운 피조물(갈라 6,15)이 되어,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(2코린 3,18)될 것이다.=> 다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(3,28)
- 모든 믿는 이의 선조인 아브라함(4,1-25)
 - ✓ 바오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할례받기 이전의 믿음을 이야기한다.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람인이었으며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.
 - ✓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(로마 4,3.9.22.23)
 - ✓ 바오로는 율법이 우리를 의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화한다고 말한다.=>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바오로 신학이다.
 - ✓ 로마 1,16 => 바오로 사도는 믿는 사람이며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언한다.
 - ✓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바오로 사도의 일침 => 로마 2, 21-23
- 맑은 영혼(5-16 장)
 - ✓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을 닮아 의롭게 되기 위해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고 강조한다.
 - ✓ 중심은 그리스도이다. 율법, 걸치레가 중심이 아니다.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,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.(로마 6,8 ; 로마 6,18)
 - ✓ 성령이 주시는 생명(8장에 대해서 말한 다음 10장부터 중요한 내용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언급한다.(로마 10,9)

- ✓ 이방인의 구원(11 장) =>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(12 장),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(13 장), 공동체에서의 생활(14-15 장)에 대해 말하고 있다.
- ✓ 끝인사와 권고(16 장) =>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안부를 전하는 인사를 한다. => 이 부분은 바오로 사도의 영과 마음, 정신이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느낄 수 있다.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일일이 안부를 전할 수 있을까?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고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영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다. 잡다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. =>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? 한번 나열해 보자.